



“雨려도네” 지난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20 KBO리그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렸다. KIA의 2회 말 공격 때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경기가 중단된 가운데 KIA 윌리엄스 감독이 덕아웃에서 나와 그라운드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오락가락 비... 희비도 오락가락



KIA, 올 시즌 66경기 치러 10구단 중 최소
화요일 KT전 2회 노게임, 선수들 컨디션 관리 난항
여름철 체력 안배·브룩스 행운의 완봉승 등 장점도
후반기 갈수록 순위 싸움 변수...땀 감독 전력 구상 고심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가장 많은 비를 만났다.

29일 KT 위즈와의 홈경기가 비로 취소됐고, 앞선 28일에도 2-0으로 앞선 2회 1사 1·2루에서 내린 비로 노게임이 선언되는 등 가장 적은 66경기를 소화했다.

KIA에는 좋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한 비다. 일단 시즌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할 때가 걱정이다. 돛구장을 안방으로 쓰는 키움 히어로즈보다 6경기를 덜 치른 만큼, 우천 시즌 경기가 막판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로테이션이 자주 어긋나면서 선발진이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28일처럼 경기 시작 후 노게임이 선언될 경우 전력 소모가 더 크다.

윌리엄스 감독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매일 전력을 다시 구상하고 있다.

가논의 등판 날짜도 윌리엄스 감독에게 새로운

고민이 됐다.

가논은 28일 선발로 나와 2이닝을 소화했다. 투구수가 20개에 그쳤던 만큼 가논의 등판 날짜가 앞당겨질 수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29일 취재진과 만나 “어제 경기가 끝난 후 가논과 이야기를 나눴다. 메츠 시절에 3일 휴식을 취하고 투구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몸상태를 본 뒤에 괜찮다면 토요일 선발도 가능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고민은 있지만 무더운 여름철 체력 관리 측면에서는 반가운 비이기도 하다. 베테랑 야수와 부담 많은 불펜진에는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유리한 비다. 내야의 잇단 부상 속 만점 활약을 해주고 있는 나주환에게도 긍정적인 비다.

윌리엄스 감독은 “팀을 챙기고 도와주는 모습이 훌륭하다. 지난 주에 나주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경기를 땔 수 있을지 몰랐다고 했다. 그만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생각보다 경기에 많이 나가면서 경기 감각적인 면에서 좋아지고 있고, 우천취소 경기 등을 통해서 체력 안배도 저절로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8일 리그 상황에서의 노게임처럼 아쉬웠던 경기도 있었지만, 비로 인해 행운의 완봉승이 기록된 경기도 있었다.

지난 6월 10일 KT와의 원정경기, KIA가 10-0으로 크게 앞선 상황에서 5회가 끝난 뒤 비로 경기가 중단됐다. 그리고 강우콜드가 선언되면서 이날 선발로 나선 브룩스는 기분 좋은 완봉승을 챙겼다. “장맛비”를 통해 윌리엄스 감독은 새로운 배움도 얻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웠다”며 “해가 났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호랑이가 장가는 날이라고 하더라. 날씨와 그라운드를 살피기 위해 그라운드에 나갔다가 프런트에게 들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고 웃었다.

오전 내내 많은 비가 내렸던 광주에는 오후 한때 비가 잠잠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해가 떠있는 상황에서도 비가 내리기도 하는 등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날 경기가 취소됐다.

한편 29일 등판이 예정됐던 양현종은 30일 KT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KT는 소형준이 아닌 데스파이네를 선발로 투입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의 토트넘, 김민재 ‘눈독’

영국 언론 “다음 시즌 영입 타겟 5명에 포함” 보도

손흥민(28)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최근 다시 유럽 진출설에 불이 붙은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4·베이징 귀안)를 영입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영국 신문 이브닝 스탠더드는 29일(한국시간) 2019-2020시즌을 마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토트넘의 ‘영입 타겟’에 사우샘프턴의 미드필더 피에레-에밀-호이비에르(덴마크) 등과 더불어 김민재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아탈란타의 풀백 티모시 카스타뉴(벨기에), 본머스의 공격수 켈럼 윌슨(잉글랜드), 미드필더 데이비드 브룩스(웨일스)까지 총 5명을 토트넘이 원하는 선수로 언급했다.

이어 “토트넘이 호이비에르와의 계약에서는 자신감을 보이며, 김민재에 대해서는 베이징 귀안 구단에 문의했다”고 덧붙였다.

키 190cm로 탄탄한 체구를 갖추고 수비력과 제

공권 등을 두루 갖춘 김민재는 소속팀과 국가대표 팀에서 정상급 기량을 뽐내며 유럽 무대에서도 러브콜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엔 토트넘이 관심을 두고 베이징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양측은 이적료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브닝 스탠더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억파운드(약 3100억원)의 손실을 본 토트넘은 대출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는 선수 영입에 쓰일 자금은 아니다”라며 “조제 모리뉴 감독이 원하는 ‘더 균형 잡힌’ 스쿼드를 위해선 자유 계약이나 임대, 트레이드 등이 유력한 방법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시장에 내놓을 후보로 수비수 대니 로즈와 카일 워커-피터스, 후안 포이트, 세르주 오리예를, 임대를 보낼 만한 선수로는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과 공격수 트로이 패럿, 수비수 라이언 세세봉을 꼽았다.



한편 김민재의 현 소속팀인 베이징 귀안은 26일 충칭 리판과 슈퍼리그 첫 경기를 치렀는데, 5일 베이징으로 돌아가 2주의 자가 격리를 거친 김민재는 이 경기 명단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한여름의 NBA

내일 4개월만에 리그 재개

미국프로농구(NBA) 2019-2020시즌이 31일(한국시간) 재개된다.

3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이번 시즌 NBA 정규리그는 31일 열리는 유타 재즈-뉴올리언스 펠리컨스, LA 클리퍼스-LA 레이커스의 경기로 순위 경쟁을 이어간다.

정규리그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팀당 8경기씩 치르게 된다.

경기는 기존의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이 아닌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 내에 위치한 ESPN 와이드 월드 스포츠 콤플렉스의 3개 코트를 사용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또 30개 구단이 모두 리그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부 콘퍼런스의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8위와 6경기 이하 차이를 보이는 팀까지 22개 구단만 ‘한여름의 NBA’에 참여할 수 있다.

8위와 9위의 승차가 4경기 이하일 경우 플레이오프 진출팀 결정전을 따로 치르고, 플레이오프는 8월 18일에 시작한다. 챔피언결정전 7차전까지 갈 경우 10월 14일에 시즌이 종료된다.

예년에는 6월 중순에 시즌이 끝나고 10월 중-하순에 다음 시즌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시즌 종료가 4개월 가까이 미뤄지면서 2020-2021시즌 개막은 올해 12월이나 2021년 1월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데뷔전서 골’ 전남 에르난데스 K리그2 베스트 11



26일 경남과의 홈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17분 동점골을 넣은 전남 에르난데스(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프로축구연맹제공>

K리그 데뷔전에서 골을 터트린 전남 에르난데스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 K리그2 12라운드 5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26일 경남FC와의 홈경기를 통해 K리그에 첫선을 보인 전남 에르난데스도 명단에 포함됐다. 0-1로 뒤진 후반 7분 그라운드에 투입된 에르난데스는 후반 17분 원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다.

에르난데스는 K리그 데뷔 10분 만에 골을 넣으며 전남의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었다.

한편 12라운드 MVP는 수원FC의 안병준에게 돌아갔다.

안병준은 25일 안양FC와의 원정경기에서 페널

티킥으로 팀의 첫골을 장식하며 2-0 승리를 이끌었다. 안병준은 이 골로 12득점에 성공, 득점 1위를 굳게 지켰다. 득점 2위는 9골을 기록한 대전하나시티즌의 안드레다. 한편 안병준을 앞세운 수원FC는 베스트매치와 베스트팀도 차지했다.

◇K리그2 12라운드 베스트 11

▲MVP : 안병준(수원FC) ▲FW : 에르난데스(전남) 록(경남) 안병준(수원FC) ▲MF : 아은범(충남아산) 마사(수원FC) 안드레(대전) 헬퀴스트(충남아산) ▲DF : 차영환(충남아산) 이한샘(수원FC) 권승리(부천) ▲GK : 김진영(대전) ▲베스트팀 : 수원FC ▲베스트매치 : 안양(0) vs (2) 수원 FC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BBC “브라이턴, 비디오 판독 최다 수혜”

EPL 8차례 실점 취소 행운...맨유 7회·토트넘 6회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비디오판독(VAR)의 수혜를 두 번째로 많이 본 팀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9일(한국시간) 스포츠 통계 업체 옵타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총 38경기를 치르는 동안 VAR 덕에 취소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은 최종 15위를 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으로, 총 8차례나 실점이 취소되는 행운을 누렸다.

이어 7차례 실점이 취소돼 공동 2위에 오른 팀이 사우샘프턴과 맨유였다. 이들 실점 취소 외에도 맨유는 여러 차례 VAR의 덕을 봤다. 지난 10일 애스턴 빌라전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페널티킥을 유

도해낸 데 이어 직접 키커로 나서 선제골을 올렸다. 맨유는 여세를 몰아 3-0으로 승리했다.

당시 VAR까지 거쳐 페널티킥 판정이 내려졌지만, 경기 뒤 오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맨유는 38라운드 최종전에서도 VAR를 거쳐 얻어낸 페널티킥을 페르난데스가 선제 결승골로 연결, 3위 확정과 8부 능선을 넘었다. 전반기 중위권까지 떨어졌던 맨유는 후반기 14경기(9승 5무) 무패 행진을 벌인 끝에 2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손에 거머쥐었다.

토트넘도 VAR 덕을 크게 본 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6차례 실점이 취소돼 4위에 자리했다.

2019-2020시즌은 EPL에 VAR이 도입된 첫 시즌이다. /연합뉴스